

제 목	국 문	비닐하우스재배농민과 일반농민의 신체증상호소율 조사		
	영 문	A survey for physical complaints of vinylhouse and non-vinylhouse farmer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문강, 최진수, 손석준, 김병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Gang Moon, Jin-Su Choi, Seok-Joon Son, Byong-Woo Kim, <i>D'ept of Prev Medicine, Chonnam Unversity Medical School</i>		
분 야	농촌지역주민의 건강	발 표 자	문 강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농부증(Farmers' syndrome)은 일본의 Kumagai(1943)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래 대부분 일본에서만 논의되었는데 Huji(1952)는 일본 농촌 지역 주민들, 특히 중년 이후 농촌부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을 여덟 가지로 묶어 "Nofusho"라 칭하고 이를 농촌주민의 건강장애 자료로 삼았으며 지난 30년 이상 일본에서는 이 일련의 증후군을 농부의 조로현상, 피로 및 일반질환 유병상태와 관련지어 조사와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농부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농부증이란 질병이 아닌 일종의 증후군이지만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방법이 마땅치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데 비교적 용이하고 유용한 건강지표가 될 수 있다고 (Wakasaki, 1957; Teiashima, 1969; Komatsuzaki, 1970) 알려져 있다.

농부증은 농촌주민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증상군으로 지역 사회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하나로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료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주민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추정되는 농부증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현재의 농촌주민의 건강수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에 활용하고자 시도 되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 자료는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전라남도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건강 실태 조사 사업의 일부로서 조사시 본 연구에 필요한 농부증의 각종 요인에 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라남도의 21개 군지역 및 6개 도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의해 다단계 집락 표본추출하여 선정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총수는 15,211명이었으나 설문작성이 불충실한 246(1.6%)건을 제외한 14,965명(전라남도 인구의 약 1%)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2년 4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였다.

### 3. 연구 결과

전라남도 전역에서 도시 5920명 (남자 913명, 여자 1182명), 농촌 12870명(남자 6148명, 여자 6722명)을 대상으로 농부증 및 농부증 관련요인에 관해 면접설문조사 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남지역 농촌의 농부증 양성률은 1,000명당 283으로, 남녀 각각 203, 355이었으며, 대조지역인 도시는 113으로, 남녀 각각 72, 145로 농촌이 도시보다 2.5배 높았다. 또한 전남지역 여자의 농부증 양성률은 232로 남자 185보다 1.7배 높았고, 조사대상자 전체의 농부증 양성률은 259이었다.

2. 연령 표준화한 전라남도 농촌의 농부증 양성률은 209로, 남녀 각각 140, 267이었으며, 도시의 연령 표준화 양성률은 122로, 남녀 각각 79, 158이었다. 전남지역 남자의 연령 표준화 양성률은 132였고 여자는 247이었으며 조사대상자 전체의 연령 표준화 양성률은 194이었다.

3. 농부증과 관련 있는 요인은 최근 15일간 일반질환 유병여부, 연령, 성, 월수입, 직업, 교육, 의료보장상태, 가족수, 농업종사년수등 이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군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수가 많거나 소수일 때, 농업종사년수가 많을수록 농부증 양성률이 높았으며, 일반질환과 큰 상관성이 있었다.

4. 농부증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근 15일간 일반질환 유병여부, 지역, 성, 연령, 교육정도, 의료보장상태, 농업종사년수등이 농부증과 관련있는 변수이었다.

### 4. 고찰

농어촌지역주민의 건강 평가를 위한 지표의 개발이 더욱 필요한 현실점에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개발된 건강지표의 하나인 농부증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하겠다. 농부증은 일반적인 피로 및 조로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특히 일반질환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Wakatsuki, 1957) 알려져 있고 농부증 양성인 사람에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Komatsuzaki, 1970) 밝혀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조사에 의하면(맹광호, 1980) 농부증 양성인 사람과 일반질환의 유병률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건강수준평가 지표로서 농부증자체의 타당도가 문제시 될 수 있겠다. 농부증을 구성하는 증상의 항목수가 적을 뿐더러 신체증상과 정신증상의 구분이 모호하여 일반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조사 시기 즉 농번기여부와 계절에 따라 농부증 양성률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농부증 여부를 판정하므로 시대적 여건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가 생겨날 수 있겠으나 이점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개선하여 새로운 지표의 개발 및 연구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되, 향후 이러한 연구에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겠고 또한 지방보건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